

함글함글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는 가정 롬 10:15, 고전 9:16, 행 1:8
2022년 주님의교회 표어



446
2022.1.23.
신년호

오늘의 말씀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_ 사도행전 7:34

오늘의 주요기사

- | | | | | | |
|-----|--------------|---|----------|----|-------------|
| 2-3 | 신년 설교 | 8 | 신임교역자 소개 | 10 | 8교구 루틴이 |
| 4-7 | 2022 제작부서 편성 | 9 | 영국선교기도회 | 11 | 찬양일기 / 교단소식 |



위드 그리스도

“궁홀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 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엡 2:4~7) ‘위드 코로나’시대라고 합니다. 우리의 2022년은 ‘위드 코로나’가 아닌 ‘위드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한 해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 큰 사랑으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함글함글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는 가정

- 14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15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데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16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17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18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19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20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21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니
 22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23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일상 속에서 행하는 하나님의 선교

2022년 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장소가 어느 곳이든 상관없이 우리의 일상에서 선교적 마인드로 살아가는 삶을 통한 선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는 가정이란 가정이 선교의 주체가 되어서 일상 속에 우리의 삶을 통해 선교하는 가족이 되자는 의미입니다.

세월이 참 빠른지 제가 주님의교회에서 사역한지 만 4년이 지나고 5년차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5년 차인 올해부터는 가정이 중심이 되는 선교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역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 이전에도 우리 교회는 선교에 어느 정도 열심이였지만 가정이 중심이 되는 선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한국교회도 세계 교회도 가정이 중심이 되는 선교를 주제로 삼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21세기 선교는 가정이 선교의 중심이 되지 않고는 선교할 수 없는 시대가 분명히 오기 때문에 우리는 선제적으로 가정이 중심이 되는 선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두 단어로 표현하면 교육과 선교였습니다. 마지막 유혹처럼 남기신 마태복음 28장 19-20절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그 핵심이 교육과 선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앞으로 4년간을 가정이 중심이 되는 선교에 초점을 맞추어서 교회 사역을 진행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바울은 ‘주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이 삶이 되어야 제대로 된 복음전파자로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선교는 일상 속에 자신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의식

그리스도인이란 자의식이 분명할 때, 하나님의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인 이상 어찌 복음을 증거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16절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냐는 철저한 그리스도인의 자의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바울처럼 이렇게 철저한 그리스도인의 자의식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이 의식에 충실하지 못합니다. 철저하지 못한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게 하시면서 까지 나를 자녀로 삼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여전히 종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15장의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큰아들의 모습은 어찌면 오늘날의 나의 자화상인지도 모릅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집 나갔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며 살진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큰 아들이 열을 받아 아버지에게 따지는 내용이 이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 중 전반부를 NIV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all these years I have been slaving for you”

큰아들은 그 아비의 사랑받는 자녀임에도 그 아비를 위해 마치 노예처럼, 종처럼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가 동생을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자 더 억울해진 겁니다. 종이 아니라 아비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면 부농의 아들인 그가 살진 송아지 한 마리에 이토록 마음 상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들의 권리와 아들의 자유를 누리지 못함으로 종처럼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로서의 권리와 자유를 누리며 삽니다. 종처럼 불안해하거나 염려걱정하고 자신 없어 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선을 경주해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곧 철저한 그리스도인의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 가정, 우리 가족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얻고자 하는 마음

영혼을 얻고자함을 생의 소중한 가치로 삼을 때 하나님의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 사이의 그 짧은 구절 속에 ‘얻고자함’이라는 구절이 무려 다섯 번이나 반복됩니다. 복음을 증거 함으로 사람을 얻기 위해 스스로 종이 되기도 하고, 율법아래 있는 자 같이 되기도 하고,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기도 하고, 약한 자가 되기도 합니다. 복음을 증거 할 수만 있

다면 어떤 형편 어떤 상황도 마다하지 않고 뛰어 들어가 복음을 증거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자신의 삶까지 걸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부러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부러워만 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부목사님과 함께 심방을 가던 중에 그 목사님이 제게 해 준 얘기입니다. 그 목사님에겐 그 당시에 6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아들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아빠 죽으면 아빠 돈은 다 나 주세요.” 밀도 끝도 없이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빠 죽으면 아빠 돈 다 자기에게 달라니까 말입니다. 그 목사님은 굉장히 우스웠지만 안 그런 척 미소를 띠고 “그 돈으로 뭐 하려고?”라고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들하고 딸에게 맛있는 것 많이 사주고 아내에게도 맛있는 것 많이 사주고 싶어요.” “그래, 그럼, 아빠하고 돈 중 어느 것이 더 좋지?” 그 아들이 한참 뜸을 들이더니 마침내 말했습니다. “아빠가 더 좋아요. 그런데 돈도 좀 좋아요.” 그 다음날 세 살 더 많은 누나가 그 사실을 알고서 동생을 막 야단쳤다고 합니다. “어떻게 너 아빠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니?” 목사님은 누나가 동생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려는 것으로 이해하고 내심 뿌듯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나는 동생을 막 야단치더니만 뒷말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아빠의 돈을 네가 다 가져가면 나는 어떻게 하는 거니? 내게 줄 돈이 없잖아.”

심방을 가던 중 그 이야기를 듣고서 참 많이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 그 얘기를 마음과 생각에 담아두었다가 아내에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아내도 그 얘기를 듣고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 아내와 함께 웃다가 정말 가슴을 치는 사실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어도 그것을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며칠 뒤로 미루지도 않았습니다. 부목사님에게 그 얘기를 듣고 집에 돌아가 곧바로 아내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전하고 싶어 못 견딘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었을 때 나는 어떠합니까? 복음과 재미있는 이야기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더 전하고 싶어 견디지 못해야 합니다. 정말 전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고 느낄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복음을 전해 듣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생명을 얻고자 하고 영혼을 얻고자 합니까? 생명을 얻고자 영혼을 얻고자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섭니까? 모든 이가 선교사로, 목사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영혼을 얻고자 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삶을 걸 수 있었던 그 비밀은 영혼을 얻고자 함을 생의 소중한 가치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영혼을 얻고자 함을 생의 핵심가치로 삼을 때 바울처럼 삶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한 순간에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 가정,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 가족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영혼 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그 다짐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한 해를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어느 날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 한 영혼 한 생명을 정말 소중한 가치로 여기며 하나님의 선교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현장에 함께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복음에 참여함

복음을 위해 복음에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의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바울은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함으로 복음에 참여하기를 소망한다고 고백합니다. 이 구절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개역개정판보다 개역성경의 번역이 훨씬 더 의미가 깊습니다. 개역성경은 ‘복음에 참여하다’를 ‘복음에 참여한다’고 번역합니다. “참여”라는 것은 전심전력을 다해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복음에의 참여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복음을 붙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도 바울처럼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바울과 달리 실전에 뛰어 들어서는 모든 것을 바쳐서 복음을 붙들지 못할까요? 자기훈련에 전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치열한 자기 훈련이 따라야 합니다. 구원받은 것은 오직 주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열심이나 의지나 노력 공로 등등 그 어떤 것도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무릎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락하고 부패해져 가는 이 세상이 변할 것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세상에 단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는 복음 외에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게 되어있습니다. 복음이 내 가슴속에 필이 되어 꽃히고, 그 복음이 먼저 나를 변화시키면, 복음으로 변화된 나의 삶을 통해 세상도 서서히 변해갈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 적어도 내가 서 있는 공동체는 복음으로 물들어가고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변화되어가는 동심원이 점점 더 이웃으로 세상으로 열방으로 확대되어가기를 꿈꿉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전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을 믿고서 희망의 메신저로 하나님선교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김화수 담임목사



하나님의 선교는 장소와 상관없이
우리의 일상에서 선교적 마인드로
살아가는 삶을 통한
선교를 의미합니다.
가정이 선교의 주체가 되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교하며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는 가정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022 제직부서 편성

- 공동의회 / 의장

김화수 목사

서기

: 배익환 장로
- 당회 / 당회장

김화수 목사

서기

: 배익환 장로

재정

: 강석인 장로

감사

: 이용수 장로
- 제 직 회 / 의장

김화수 목사

서기

: 홍완식 안수집사

1. 목양위원회

위원회	간사장로	분과위원회	위원장	교역자
목양	이성준 장로	예 배	임익수 장로	이종성 목사
		음 악	김광일 장로	이대혁 목사
		소그룹	변춘석 장로	박주영 목사
		젊은이	유정식 장로	한시영 목사
		양 육	이성준 장로	윤경수 목사
		봉 사	신형섭 장로	류경민 목사

1) 예배 분과위원회

#	부	부장	#	부	부장	#	부	부장
1	예배부	홍기호 안수집사	4	세례부	이창수 안수집사	7	할렐루야 찬양대	이민숙 권사
2	안내부	김미선 권사	5	중보기도부	설정희 권사			
3	성찬부	유윤실 권사	6	새벽기도부	이성옥 안수집사			

2) 음악 분과위원회

#	부	지휘자	부장(대장)	반주자(오르간/피아노)	#	부	지휘자	부장(대장)	반주자(피아노)
1	호산나찬양대	민태경	엄인호 안수집사	오세은 / 조선희	4	임마누엘 찬양대	이명국	박용좌 안수집사	김혜경
2	시온 찬양대	양재무	유재건 안수집사	박혜선 / 정호정	5	찬양지원부	이효두 집사		
3	샬롬 찬양대	강진명	김정래 안수집사	김성희 / 정이와	6	주오오케스트라단	박지현 악장		

3) 소그룹 분과위원회

#	부	부장	#	부	부장
1	소그룹지원부	함혜련 권사	2	은사사역부	김지수 권사

4) 젊은이(8교구) 분과위원회

#	부	부장	#	부	부장
1	지원부	박재민 안수집사	2	젊은이사역부	김덕임 권사

5) 양육 분과위원회

#	부	부장	#	부	부장
1	새가족부	서재화 권사	2	양육훈련부	민연식 권사

6) 봉사 분과위원회

#	부	부장	#	부	부장
1	주방부	김현희 권사(상반기) / 박경희 권사(하반기)	4	도서서점부	박동진 안수집사
2	봉사부	김명훈 안수집사	5	결혼예식부	고명숙 권사
3	주차안내부	배기호 안수집사			

2. 교육위원회

위원회	간사장로	분과위원회	위원장	교역자
교육	서준규 장로	유아숲	최재경 장로	이은미 전도사
		유소년숲	임익수 장로	이상훈 목사
		청소년숲	김은성 장로	임경순 목사
		청년숲	서정하 장로	정구민 목사
		EM	서준규 장로	이진희 목사

1) 어린이 분과위원회 유아숲

#	부	담당교역자	1부 부장/지도권사, 2부 부장 / 지도권사	#	부	담당교역자	1부 부장/지도권사, 2부 부장 / 지도권사
1	유아숲 교육지원부	이은미	이미영	5	유아부(썹트네)	이은솔	최정윤 / 조정숙, 강기선 / 이미화
2	아기정원	이은미	강은주 / 전진희	6	유치부(담쟁이)	이수진	송 희 / 권이홍, 유희정 / 유혜경
3	아기부(하임)	김오정	윤석춘 / 최은실	7	어와나 커비	김오정	임창남 / 윤현숙
4	영아부(하늘씨앗)	정은영	최우철 / 김현진, 이은우 / 김성은				

2) 어린이 분과위원회

유소년부

#	부	담당교역자	1부 부장/지도권사, 2부 부장 / 지도권사	#	부	담당교역자	1부 부장/지도권사, 2부 부장 / 지도권사
1	유소년부 교육지원부	이상훈	최영인	4	소년부(아름드리)	이수민	이정춘/이영숙, 강정여/이춘희
2	유년부(포도나무)	김경민	김애리/김영림, 유 경/이경란	5	어와나 스팅크	김경민	임창남/이춘실
3	초등부(햇살뜨락)	권동준, 이상훈	김영례/문현주, 신재은/김경희	6	어와나 티앤티	권동준	임창남/천옥현

3) 청소년 분과위원회

#	부	담당교역자	부장(안수집사/권사) / 지도권사	#	부	담당교역자	부장(안수집사/권사) / 지도권사
1	청소년부 교육지원부	임경순	강희정	4	어와나 트랙	백양선	임창남 / 손태향
2	중등부(팝콘트리)	최혜원, 이요안	김신정 / 정재영	5	어와나 저니	백양선	임창남
3	고등부(비전트리)	조영찬, 정우림	이신형 / 유정아				

4) 청년 분과위원회

#	부	담당교역자	부장(안수집사) / 지도권사
1	청년부	정구민, 김종희, 이충만, 김세연	지호선 / 임연옥

5) EM 분과위원회

#	부	담당교역자	부장(안수집사/권사) / 지도권사	#	부	담당교역자	부장(안수집사) / 지도권사
1	영어예배부	이진희	김윤수 / 이광실	3	한국어교실부	이진희	김경희
2	어린이영어예배부	정지인	이광실				

3.선교구제위원회

위원회	간사장로	분과위원회	위원장	교역자
선교구제	황용환 장로	국내선교	황용환 장로	이진희 목사
		통일선교	김익훈 장로	류경민 목사
		해외선교	이현식 장로	이진희 목사
		전문선교	손영익 장로	배윤환 목사
		구제복지	김낙균 장로	배윤환 목사

1) 국내선교 분과위원회

#	부	부장	#	부	부장
1	국내선교지원부	이성호 안수집사	5	협력교회선교부	고경임 권사
2	군경선교부	북향수 안수집사	6	다문화선교부	장동현 집사
3	농어촌선교부	천정희 권사	7	기관선교부	송재승 안수집사
4	도시교회선교부	황석진 집사			

2) 통일선교 분과위원회

#	부	부장	#	부	부장 / 지도권사
1	통일선교지원부	김재민 권사	3	너나들이부	김기연 안수집사 / 신영숙 권사
2	하나원부	강대수 안수집사	4	대외활동지원부	이영숙 권사

3) 해외선교 분과위원회

#	부	부장	#	부	부장
1	해외선교지원부	박석진 안수집사	4	선교지역 1부	김용규 안수집사
2	선교기도교육부	안경희 권사	5	선교지역 2부	정준호 안수집사
3	비전트립지원부	박성갑 집사	6	외국인유학생선교부	서병운 안수집사

4) 전문선교 분과위원회

#	부	부장	#	부	부장
1	기획운영부	박준명 안수집사	5	사진부	박진현 안수집사
2	성극부	손경숙 권사	6	이미용부	임미희 권사
3	스포츠선교부	김미선 권사	7	법조선교부	윤승진 안수집사
4	무용부	목기숙 권사	8	의료선교부	이광우 안수집사

5) 구제복지 분과위원회

#	부	부장	#	부	교역자	부장
1	구제부	김중호 안수집사	4	전화상담부	배윤환 목사	방혜령 권사
2	복지부	김형세 안수집사	5	사랑나무부	노홍주 전도사	탁준한 안수집사
3	호스피스부	김희수 집사	6	장애인사역부	김은선 목사	한재희 안수집사

4. 부설기관

1) 청소년사역원

담당 장로 : 심동욱 장로
담당 교역자 : 임경순 목사

#	부	부장	#	부	부장
1	청사원지원부	신기숙 권사	3	반가운학교부	이은영 권사
2	학원선교부	장현주 권사	4	꿈나무부	권이홍 권사

2) (사)섬김과나눔

담당 장로 : 조병길 장로
담당 교역자 : 이대혁 목사

#	부	부장	#	위탁기관	부장
1	사무국	이철용 안수집사	5	송파구립가락본동어린이집	나의연
2	늘푸른대학부	홍운식 안수집사	6	송파교육복지센터	박은경
3	생활지원부	소봉순 권사	7	마천종합사회복지관	김선화
4	특별구제부	곽병남 권사			

3) 뷰티풀페어런팅센터

담당 장로 : 최재경 장로
담당 교역자 : 한시영 목사

#	부	부장	#	부	부장
1	가정사역부	박재민 안수집사	2	가정사역훈련부	송정애 권사

5. 전문위원회

위원회 / 센터	위원장	위원		부장
기획조정위원회	김화수	배익환, 강석인, 황용환, 이성준, 손영익, 서준규, 김낙균, 황바울		
대외협력위원회	배익환	이성준, 유정식, 조병길, 김광일, 김은성, 최재경, 임경순		
인사위원회	김화수	배익환, 황용환, 김익훈, 김은성, 김광일, 이현식, 황바울		
예산심의위원회	김화수	배익환, 강석인, 서준규, 이성준, 황용환, 조병길		
미디어관리위원회	유정식	손영익, 김은성, 서정하, 신형섭, 임익수		홍보출판부 : 장경식 안수집사 역사자료관리부 : 정원영 안수집사
사무국운영위원회	김화수	배익환, 강석인, 손영익, 김광일, 조병길, 김익훈		
선거관리위원회	손영익	김광일, 이현식, 신형섭, 김낙균, 변춘석, 이종성		
치리위원회	김화수	배익환, 심동욱, 유정식, 서준규, 김익훈, 변춘석, 황바울		
장학위원회	서준규	심동욱, 조병길, 김은성, 김낙균, 서정하, 임익수		장학부장 : 최명철 안수집사
상례위원회	상반기:김학원 하반기:신형섭	서정하, 최재경, 변춘석, 임익수 (동현수, 김유호 6월*)		상례부장 : 박영상 안수집사
재정위원회	강석인	계수1부 : 최봉수 안수집사	계수2부 : 박태곤 안수집사	재정부장 : 김용철 안수집사
감사위원회	이용수	구태호 안수집사, 손태향 권사		

* 상례위원회 하임찬양대 : 대장 – 김예경 권사 / 지휘 – 고유자 권사 / 반주 – 유혜경 권사 외 24명

강경희 고유자 김영희 김예경 김종석 김현진 김희수 문연자 박경희 서정하 오현욱 유소자 유혜경 이미화
이소연 이소현 이준완 이효두 임성은 임연옥 정하선 조보연 조정숙 홍정미

6. 기관 및 자치회 회장

기관 및 자치회	회장	기관 및 자치회	회장
1여전도회	김영조 권사	1남선교회	최재규 안수집사
2여전도회	최정숙 권사	2남선교회	권승환 안수집사
3여전도회	박수희 집사	3남선교회	정상기 안수집사
4여전도회	유소자 집사	4남선교회	이재덕 안수집사
5여전도회	김화선 집사	5남선교회	이재홍 안수집사
6여전도회	양윤정 집사	6남선교회	박성갑 집사
권사회	이혜성 권사	안수집사회	천인성 안수집사
		장로회	동현수 장로

7. 담당 교역자

교역자	교구 / 부서	주요 사역(위원회)	기타 사역 및 기관
황바울 목사	선임행정	전문위원회	사역총괄, 목회행정, 피택자교육, 자치회(장로회)
박주영 목사	1교구	소그룹분과위원회	기획, 상례, 교적, 자치회(권사회)
이종성 목사	3교구	예배분과위원회	찬양사역, 중보기도부, 선거관리위원회
한시영 목사	8교구	젊은이분과위원회	Beautiful Parenting Center 총괄, 큐티사역, 주일설교 3분 메시지/한절묵상, 자치회(안수집사회)
임경순 목사	청소년숲	청소년분과위원회	청소년사역총괄, 청소년사역원
이은미 전도사	유아숲	어린이분과위원회 유아숲	유아숲총괄, 아기정원, BPC(세움학당,센싱큰나무)
이진희 목사	선교전담	해외선교분과위원회 국내선교분과위원회 EM분과위원회	영어예배, 한국어학교
윤경수 목사	7교구	양육분과위원회	새가족부, 양육클래스, 새벽기도부, 자치회(여전도회)
이대혁 목사	5교구	음악분과위원회	섬김과나눔(사단법인), 자치회(남선교회)
정구민 목사	청년부	청년분과위원회	청년사역 총괄
이상훈 목사	유소년숲	어린이분과위원회 유소년숲	유소년숲총괄, 초등부, 어린이제자훈련, BPC(파더와이즈)
배윤환 목사	4교구	전문선교위원회 구제복지분과위원회	장애인사역부, BPC(가정예배학교), 가정예배(영상)
박민규 목사	2교구	미디어관리분과위원회	미디어행정(IT / 방송 / 음향), 영상기획 및 관리
류경민 목사	6교구	봉사분과위원회 통일선교분과위원회	함글함글

부서 교역자

이지형 전도사	젊은이분과위원회, BPC(결혼예비학교), 큐티사역	최혜원 전도사	중등부, 청소년사역원
장성식 전도사	소그룹분과위원회, 양육분과위원회, 찬양, 피택자교육, 새가족	조영찬 전도사	고등부, 청소년사역원
이진명 전도사	목양실, BPC(행정)	정은영 목사	유아숲 행정, 영아부, BPC(마더와이즈)
김종희 목사	청년부	김경민 전도사	유소년숲 행정, 유년부, BPC(자녀축복기도회), 어와나

부임 인사

할렐루야, 인사드립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여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새해부터 2교구를 섬기게 된 박민규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귀한 교회에서 복된 사역을 감당하게 됨을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로 얼굴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가리고, 교제보다는 거리두기가 익숙해져버린 이들이 점차 늘어가는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동역자분들 곁에서 겸손히 배우며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의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개인의 다짐'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민규 목사 / 2교구, 미디어관리분과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며



주님의교회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2022년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며 6교구, 통일선교분과위원회, 봉사분과위원회, 함글함글에서 반구십리의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희망을 견고히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증언하며, 간절한 기도로 Beyond Covid 시대를 함께 열어가기로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류경민 목사 / 6교구, 봉사분과, 통일선교분과, 함글함글

섬김과 겸손의 마음으로

할렐루야, 교구/소그룹분과를 섬기게 된 장성식 전도사입니다. 이제 주님의 교회를 마음에 품으며 진심으로 사랑하고자 합니다. 담임목사님과 장로님, 부목사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을 감사와 기쁨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2022년 하나님께서 주님의교회에 부어주시길 큰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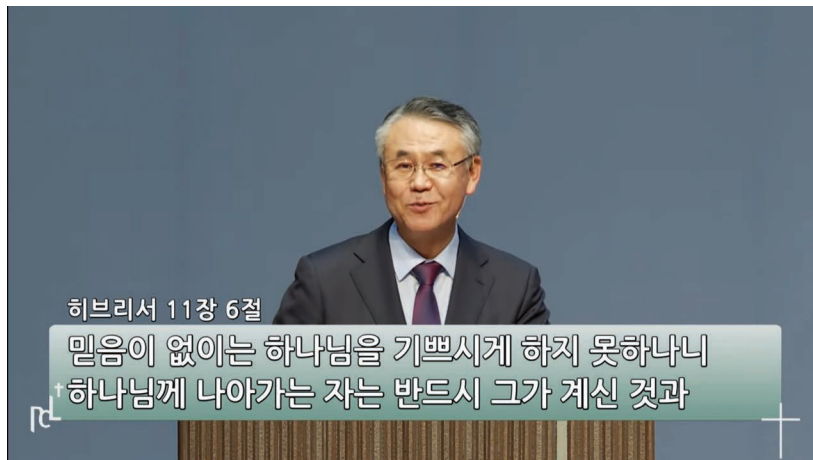
장성식 전도사 / 교구·소그룹분과

교회 소식

송구영신예배

코로나19가 계속되어 오던 2021년의 마지막 날, 주님의교회 송구영신 예배가 현장예배 및 실시간 유튜브 방송예배로 진행되었다.

이날 2021년을 돌아보는 영상이 상영되었으며, '온 가족 기도문'을 함께 기도하고, 김화수 담임목사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김화수 담임목사는 이 설교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우리의 삶이 멈춘 것 같지만, 드러나지 않은 우리의 영역에서 기도의 뿌리, 믿음의 뿌리를 깊고 넓게 내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 믿음의 삶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믿음의 눈을 뜨고 살아야 함을 강조하며, 올 한해 무엇보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의 눈을 뜨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말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가정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라 말하며, 각 가정이 선교의 자리가 되어 우리 삶으로 선교하는 가정이 되기를 제안했다.

함글함글

교회 소식

신년특별새벽기도회

온 가족이 함께 하는 2022년 신년특별새벽기도회가 1월 3일(월) ~ 8일(토)까지 "영혼을 뚫고 들어온 복음"이라는 주제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현장예배와 유튜브 실시간 방송예배를 통해 진행되었다.



3일 '우리 가정을 내게 주소서'(여호수아 14:6~12), 4일 '더불어 일어나'(여호수아 1:1~9), 5일 '신앙의 모험'(여호수아 2:1~21), 6일 '준비된 사람'(여호수아 4:1~9), 7일 '새로운 시작-진정한 회개로부터'(여호수아 7:1~21), 8일 '나만의 단장을 들고'(여호수아 8:1~29)의 주제였으며, 강사는 김화수 담임목사가 맡았다.

함글함글

선교 소식

영국선교기도회

지난 12월 19일 중예배실과 온라인을 통해 해외선교위원회 주관으로 김윤희 선교사(31)의 선교보고와 후원을 위한 영국선교기도회가 열렸다.



영국선교기도회 Blessing to UK 2021.12.19

윤경수 목사의 사회, 김경희 권사의 환영인사, 이현식 장로의 대표기도, 최남영 집사의 해금 연주, 김화수 담임목사님의 격려사, 해외선교위원장 손영익 장로의 선교사 소개, 김윤희 선교사의 선교보고영상 및 2022 영국선교청사진, 중보기도의 순서로 진행이 되었다.

“동역자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나가야”



김윤희 선교사 / 김화수 목사

김화수 목사는 “영국교회가 김윤희 선교사를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이고 축복”이라고 말하며 “우리 모두 김선교사와 함께 동역자로 하나님 선교를 이루어 나가야”함을 강조하였다.

손영익 장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헌신하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온전한 선교사로 서는데 10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할 때 김윤희 선교사가 앞으로 더욱 영국선교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기도로 모두 함께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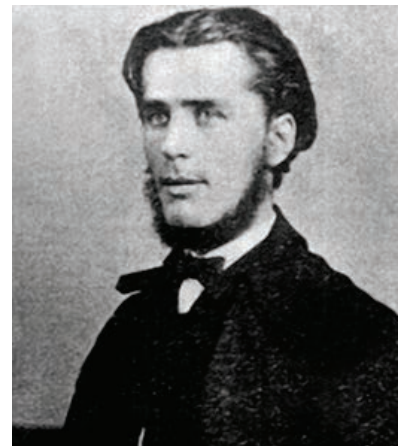


마울(이슬람) 선교

김윤희 선교사는 “영국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파송을 해 주신 김화수 목사님과 당회에 깊이 감사드리며 복음전파를 위해 어떤 어려움과 역경을 겪더라도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길을 가겠다”라고 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이슬람선교에 열매를 맺고자 한다”고 하였다.

토마스 선교사의 길을 따라

장로교 본산지로 존 녹스(John Knox, 1514-1572)에 의해 세워진 스코틀랜드국교회는 한국 최초의 성경을 번역한 로스(John Ross, 1842-1915) 선교사를 파송하였다. 영국개혁신교회(United Reformed Church, URC)는 잉글랜드 장로교단으로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 토마스(Robert J. Thomas, 1840-1866) 선교사를 파송하였으며 김윤희 선교사가 섬기고 있는 두 개의 영국인 교회가 이 교단에 속해 있다.



토마스 선교사

런던은 한국 초기 선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 1859-1916) 선교사가 출생한 곳이다.

이 외에 영국은 신앙의 수호자로서 한국전쟁 당시 두 번째로 많은 군인을 파병하였으며 1,114명이 전사하였다. 이 중 스코틀랜드에서 파병된 군인의 대부분이 장로교인이었다.

특히 영국교회가 초기 한국 선교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을 고려할 때 주님의교회에 의해 파송된 김윤희 선교사의 영국선교 사역은 세계선교에 있어서 하나의 전환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선교사 소개

김윤희 선교사는 주님의교회 오르가니스트(2012-2019)와 총회 세계선교부 간사를 거쳐 현재 총회 파송영국선교사 / 주님의교회 파송 선교사로 영국개혁신교회(URC) 소속 런던세인트앤드류스교회와 투팅교회에서 선교사로 사역 중이다.



김윤희 선교사 (younh0603@gmail.com, 카톡 아이디 : kyh6417)

김선교사는 장로회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총회세계선교대학, 총회파송업무교육, 총회파송선교사연장교육, 영국청소년교육허가증, 세계교회협의회 에큐메니칼연구과정(WCC), 정신건강 코스(MHFA England), 영국개혁신교회의 역사와 윤리 등을 수료하였으며, 영국개혁신교회에서 설교자 자격과 성찬집례 자격을 인준 받아 영국개혁신교회 내의 여러 교회를 순회하며 복음 전파 사역을 하고 있다.

김선교사의 기도제목은 첫째, 토마스선교사를 파송했던 영국개혁신교회를 통해 복음으로 영국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도록, 둘째, 선교 역량 확대를 위해 장기비자 비용과 차량이 준비되도록, 셋째, 영적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도의 후원자들이 예비되는 것이다. 해외선교부

경건생활 루틴이를 소개합니다

내년에도 계속될 것 같은 비대면 상황의 교구사역을 고민하다, 지난 연말 책 한 권을 읽고 교구 안에서 새로운 소그룹 모임을 하나 만들어서 진행 중이다.

자기 주도적으로 생수를 살아가고자 하는 신인들이 나타났다. 직장인은 하루 일과표를 만들어 스스로 준수하고, 학생들은 모르는 사람들끼리 스터디 카톡방을 만들어 실천을 인종한다. 일상에서도 "3분간 양치하기" 같은 소소한 루틴을 지키며 나만의 성공 스토리를 이어간다. '루틴 routine'은 매일 수행하는 습관이나 절차를 의미하는 말인데, 외부적 통제가 사라진 상황에서 루틴을 통해 스스로의 일상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요즘 사람들을 '바른생활 루틴이'라고 부르곤 한다. 루틴이들은 자진해서 목표를 만들어 자신을 묶고, 함께 '습관 공동체'를 만들어 타인의 도장을 받고, 매일매일을 되돌아보며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작은 성취를 확인해나간다. 루틴이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근로시간의 축소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생활과 업무의 자유도가 높아지면서, 자기 관리를 보다 단단히 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김난도(2021), 「트렌드코리아 2022」 미래의 창)

교구 식구들이 혼자서는 개인 경건생활이 힘드실 것 같아, 우리 함께 모여(온라인) 개인 경건생활의 습관공동체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다. 처음부터 1년이라는 긴 호흡의 훈련은 부담될 것 같아, 2022년 1/4분기 3개월 동안만 함께 훈련해보자고 했다. 그랬더니 믿음이 부족한 나의 예상과는 달리 31명의 교구 식구들이 자원해서 신청해 주셨다. 2022년 새해부터 '경건생활 루틴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분들과 함께 큐티와 성경필사, 성경통독 등 각자가 매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정해서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함께 경건생활을 훈련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울리는 각자 개인 경건생활의 인증과 그를 격려하는 사랑이 넘치는 리액션들로 행복한 새해를 보내고 있다. 나의 기도에 늘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과, 부족한 나에게 사역을 믿고 맡겨주신 주님의교회가 난 참 좋다.

한시영 목사



작년 9월. 나의 삶에는 거부할 수 없는 커다란 이정표가 그어졌다. 생사를 가르치는 이정표에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달리기만 했던 나는 멈추어 설 수밖에 없었다. 40대 중반에 예상치 못한 충격에 정신을 놓고 슬픔의 심연에 빠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 순간 나의 삶에는 주님의 역사가 함께하였다.

나보다 먼저 상황을 파악한 아내를 통해 교회에 기도를 부탁하게 하고 충격에 빠진 나를 다잡으며 가족들을 통솔하고 온갖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게 하셨다. 격렬한 슬픔의 시간이 지나고 나에게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시고 같은 이야기도 긍정적으로 들리도록 역사하셨다. 그리하여 그대로 살아서는 알기 어려운 삶의 깨달음을 주셨다.

그간 나의 신앙은 성도 간의 배움과 교제, 섬김, 기도 모두가 부족한 0점짜리였다. 언젠가 성경 필사 광고를 접한 나는 '시간이 있어야 하지'라는 생각을 했었다. 성경 공부, 교제, 섬김은 나에게 우선순위가 아니었다. 기도 역시 형식적이었고 의를 구하기보다 내 필요만 늘어놓는 사람이었다. 그런 나에게 주님은 "이제 너에게 시간을 주었으니 먼저 네가 할 것을 채워라"고 말씀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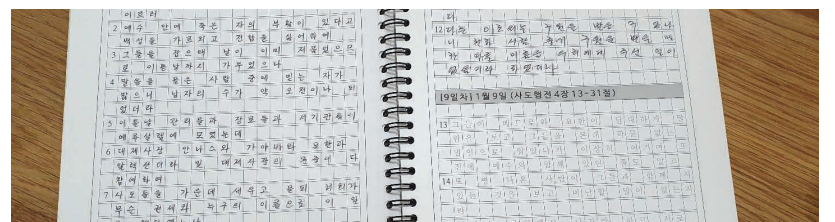
때맞춰 올해 '경건생활 루틴이'모임이 시작되었다.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성경 말씀을 대하는 나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도 채워주고 계신다. 코로나로 온라인으로 나눌 따름이지만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나누는 감동이나 깨달음을 읽다 보면 많은 은혜를 받는다. '경건생활 루틴이'는 성실하지 못했던 나를 이끌어 주는 견인차이자 나의 신앙의 엔진의 연료가 되고 있다.

최태섭 집사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칠 때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길 정도로 기쁨이 가득했던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최근 대형 교회의 부패와 부도덕으로 인해 교회의 권위가 이전 같지 않고,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모이기에 힘썩었던 교회의 수많은 소그룹 모임조차 불가능해져 버린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 그렇게 살아가기가 힘들어진 시대적 상황을 핑계 삼아 예배에 대해 나태해지고, 복음을 전하기가 두렵고 오히려 부끄럽기까지 한 제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와이프의 권유로 8교구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경건생활 루틴이'에 거의 막차로 올라탄 지금 비록 카톡으로 묵상한 내용들을 짧은 메세지로만 나눔을 하고 있지만, 서로의 나눔에 짧은 하트로 마음을 나누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등 새로운 방식으로 중보하며 교제하는 지금 우리의 모습들이 어찌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새 지평을 열어준 공동체가 아닐까? 바쁜 일상 속에서 짧은 메세지로 나누는 묵상의 내용들을 묵상하고 공유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가 배가 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조금씩 신앙을 회복해 가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영성을 회복하고, 적극적인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지금, 누군가에게 비취지는 나의 모습에 대한 부담감이 아니라, 그분께서 일방적으로 내려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기쁨으로 반응하며, 친밀함을 회복하고, 내가 느낀 하나님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해간다면 나를 통해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경건생활 루틴이'를 시작한지 2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 용기를 내어보고 있습니다. 2022년 새롭게 참여하게 된 '경건생활 루틴이'를 통하여 삶의 우선순위와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는 한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김주철 집사



찬양대 찬양일기

가사는 찬양의 몸

주님의교회 1부 호산나 찬양대는 올 한 해 중앙성가 최신판인 42권을 사용하여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새해 첫 주의 찬양은 본회퍼 목사님의 옥중서신을 곡으로 만든 '선한 능력으로'였습니다. 가사 내용 중에는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라는 부분이 있어 새해 첫 곡으로 맞춥이었고 '주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를 감싸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아름다운 멜로디에 담아 찬양을 드리니 코로나로 지친 우리들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 찬양은 '우리 다시 기쁨의 찬양'이었는데 가사가 우리의 마음을 잘 대변하여 주어서 찬양을 드리는 내내 마음 깊은 곳에서 아멘이 쉴 새 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찬양을 듣고 있는 성도들 표정에서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가' 공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셋째 주 찬양은 '나의 죄를 씻기는'입니다. 저는 음악적인 실력이 부족하여 찬양곡을 통째로 암기하여 부르는데 그러기 위해 가사만을 따로 적어 외웁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멜로디 없이 가사만 읽어도 은혜가 넘칩니다. 주께 감사하리 '내게 행한 모든 일' 주님 자비와 은혜 나를 자유케 하네 주님 영원한 사랑 변함없으니 '내가 행한 모든 것' 주 뜻 안에 있도다. 특히 '내게 행한 모든 일'과 '내가 행한 모든 것' 두 문장은 동음이의어가 주는 언어 유희의 즐거움은 물론이요 마치 서로를 돋보이게 하는 보색처럼 문장의 의미가 또렷하게 느껴져 감탄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재미와 감동을 동시에 주는 훌륭한 가사를 읽고 어찌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으며 내가 행한 모든 것이 주 뜻 안에 있기를 바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구구절절 가사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교회음악의 중심은 가사에 있음을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비유하자면 찬양의 몸은 가사이며, 그 외 음악적인 표현은 몸을 아름답게 꾸미는 옷이나 액세서리에 해당합니다. 아무리 웅장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더라도 가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마네킨에 옷만 입힌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호산나 찬양대를 이끌고 계신 민태경 지휘자님도 늘 이점을 강조하여 단원들에게 정확한 발음과 말의 뉘앙스는 물론이요 말의 온도까지 세심하게 지시하여 가사가 지닌 뜻을 정확하게 전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연습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순서 중 찬양과 관련하여 예배자들이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는 찬양은 온전히 찬양대의 몫이라고 생각하여 관객의 입장으로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찬양대는 성도를 대표하여 소리를 내어 찬양할 뿐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모두가 찬양대원입니다. 하여 찬양곡이 연주될 때 가사를 눈으로 따라 부르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찬양에 동참한다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찬양대원으로 호산나에 들어오시면 언제나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호산나 찬양대

교단 소식

106회 총회 주제 심볼마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제106회기 총회 주제(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심볼마크를 설명합니다.



심볼마크는 십자가, 삼색 날개(복음/교회/세상), 세상(지구)을 모티프로 위기의 시대에 기독교의 본질로 돌아가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청색 직사각형과 삼색의 날개로 구성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퍼져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청색 직사각형은 한국사회와 교회 그리고 세계 교회의 중심에 굳건히 서 있는 교단 교회를 의미합니다.

붉은색 날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교회와 세상을 물들인다는 의미이며, 녹색 날개는 세상의 어떤 위기 속에서도 교회는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청색 날개는 복음의 중심에 서는 교회는 언제나 세상의 희망이라는 의미입니다.



푸른색 지구본은 복음으로 세상을 섬겨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함글함글

2022 함글함글 신춘문예
시 부문 당선작

광야

윤재민

광야의 시간을 통해
나는 가난해지고
나는 순수해지며
짓이겨짐을 통해
어쩔 수 없는 순종과 겸손을
뿌리 깊게 받아들인다

광야로 추방한
내가 그토록 미워하던
사람도
광야의 한복판에서
괴로워하지 않을까?

예수인 양
얼토당토한 연민과 동정이 떠오른다

광야는
역설이 혼재하는
고통과 은혜가
화해하는 광장일까?

함글함글 공지

제2회 함글함글 신춘문예 결과를 발표합니다

2022년 함글함글 신춘문예 당선작

수필 부문 : 당선작 없음
간증 부문 : <만남의 재구성> 김중호 안수집사(5교구)
시 부문 : <광야> 윤재민 성도(8교구)

응모 현황과 심사 경위, 심사평과 당선자 소감, 간증 부문 당선작은 다음 호에 발표합니다. 2022 함글함글 신춘문예에 많은 관심 주셨던 여러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홍보출판부



교회일정

1/23(주일)	제직회(4/4분기)
	제직수련회(강사: 정한조 목사)
1/26(수)	공동의회
2/9(수)	교구연합수요기도회

알립니다

1. 코로나 극복을 위한 7·7·7 특별기도

하루에 3번(7시, 14시, 21시) 코로나 극복을 위해
지역 사회와 나라와 민족 그리고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2. 대예배실 내벽 흡음재 교체공사 안내

공사기간 : 1/10(월) ~ 3/10(목)까지
※ 주일에배만 대예배실에서 드립니다.
새벽기도회, 수요일예배는 중예배실에서 드립니다.

3. 유소년숲 겨울성경학교

주제 :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는 가정(행 1:8)
일시 : 2/12(토) 오전 10:30부터 유튜브채널
송출(온라인 진행)
신청방법 : 구글 신청서(각 부서 네이버 밴드)로 신청
신청기간 : 1/23(주일) ~ 2/5(토)
문의 : 이상훈 목사(010.9808.4788)

4. 청년부 겨울 온라인수련회

주제 : Live together
날짜 : 2/12(토) ~ 13(주일)
진행 : 예배(대면, youtube), 소그룹(gathertown, zoom), 공동체모임(gathertown)
문의 : 김중희 목사(010.4030.7910)

함글함글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유정식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www.pcltv.org

편 집 : 홍보출판부

<함글함글>은 주님의교회가 발행하는 문서선교지입니다.
'함글함글'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15) 말씀에 바탕을 두고,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좋은 글, 소식, 간증, 기사제보를 기다립니다.

이메일 : hamletter@daum.net



주님의교회